

연륜에 연연하지 않고 젊은 길을 간다!



권오상 과장을 비롯한 편집부 식구들

1945년 12월, 종로2가 영보빌딩, 을유문화사

1949년 발행된 《출판대감》을 보면 출판사 등록번호 순으로 국내 출판사 798개의 명부名簿가 게재되어 있다. 을유문화사는 248번으로 주소지는 종로2가 영보빌딩으로 되어 있고 발행인은 민병도로 게재되어 있다. 해방 후부터 194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도서목록과 출판사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 이 책에 을유문화사의 발행인이 민병도로 되어 있는 것은 을유문화사가 정진숙, 민병도, 윤석중, 조풍연 이 네 사람이 함께 시작했기 때문이다. 출판사 이름은 해방되던 해가 을유년이라 정해졌다. 일제하에 말살된 우리의 문화를 복원시키겠다는 취지하에 1945년 12월 설립된 이 출판사의 역사는 곧 현대 한국출판의 역사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따라서 몇 년 전 현역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출협 회장 12년, 출판금고(현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을 30년간 맡았던 정진숙 회장을 빼고 을유문화사를 이야기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의 역사, 문화, 언어가 다 말살되지 않았어? 애들을 가르치는 책부터 일본말로 된 걸 다 한글로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처음 출판한 게 《글씨 체첩》이라는 한글을 소개하는 책이었지. 또 〈소학생〉이라는 주간지도 냈고. 출판사를 만들면서 돈벌이는 생각도 안 했어. 내용이 좋고 누가 내든 내야 할 책이다 싶으면 덮어놓고 냈지. 조선문화총서, 세계문학전집 등 내가 출판했던 책들과 지금 출판을 비교하면 정말 꿈같지.”

종로 영보빌딩에서 시작했던 을유문화사는 그러나 6·25 때 금고에 있던 돈이며 장부며 책이 다 타버려 전쟁이 끝난 후 현재의 자리로 옮겨왔다. 함께 시작했던 세 사람은 떠나고 정진숙 회장만 남았다. 그간 출간했던 책들을 수거하기 위해 고서점에 을유문화사 책이 나오면 다시 사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시절이었다.

“《큰사전》을 내가 10년을 두고 만들었어. 그때는 종이가 없어서 사전을 만들 수가 없을 텐데 조선어학회 사람들이 우리보고 내달라고 하는 거야. 엄두가 안 나는 일이라 처음엔 망설였지. 하지만 그들이 우리한테 꼭 내야 한다고 해서 모조지를 있는 대로 구해다가 한 권을 먼저 만들었어. 그걸 보고 미군정에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 아니면 일본의 식민지여서 언어고 문자고 없는지 알았는데 과학적인 사전이 있다고 우리에게 용지를 지원하겠다고 하더군. 록펠러재단에서 종이지원을 한 거지. 그 종이로 인쇄를 하려고 하니 6·25가 터져서 영등포에 있는 미곡창고회사에 갔다왔는데, 인민군들이 그곳을 점령해서 그 종이로 스탈린, 김일성 사진을 찍어서 방방곡곡 붙여놓았더라구.”

환도 후에 다시 요청을 하고 1958년에 《큰사전》을 출간하기까지 있었던 어려움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원조를 다시 해달라고 했더니 종이량이 일단 반으로 준 데다가 무엇보다 한글학회에서 일하던 이들도 전부 시골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편집일 할 사람이 없었다. 사무실을 얻어 그들을 다시 불러들여 사전을 내기까지 들인 정성과 끈기는 지금 생각해도 불가사의하다.



정진숙 회장

2003년 3월, 종로구 수송동 46-1, 을유문화사

2003년 3월 현재 을유문화사는 미국에 있는 정진숙 회장의 큰아들 정낙영 대표가 이끌고 있으며, 손자인 정상준 기획실장을 비롯한 편집부 5명, 영업부 3명, 창고관리 2명을 포함한 관리부 5명이 구성원이다. 보유 종수는 현재 움직이는 것만 치면 대략 1천 중 정도.

사옥은 조계사 옆에 있으며 예전에는 전층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3개층만 사용하고 있다. 영업 관리부는 1층, 편집부와 회장실은 2층, 지하는 창고로 쓰고 있다. 3층에는 독서실 겸해서 지금까지 나온 책들을 보관하고 있다.

1989년 8월에 입사해 편집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오상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일 년에 평균 30종 내외 출간하고 있으니 한 달에 2권 내지 3권 정도를 내고 있는 셈.

“그동안에는 종합출판을 지향하고 진행해 왔지만 인문사회, 경제경영, 기초과학 등으로 특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어린이책은 예전에 잠시 내봤는데 영업 패턴도 다르고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을유문화사의 작년 매출액은 38억 원 정도였고, 올해는 45억 정도로 잡고 있다. 현재 기획실장인 정상준 실장은 영화쪽 일을 했던 터라 문화 전반으로 출간 영역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권오상 과장이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인문사회 쪽으로 《사기열전》 등 고전을 새롭게 조명해서 내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경제경영서 역시 꾸준히 낼 계획이나 을유문화사라는 그릇에 맞는 책은 아무래도 인문사회라든가 한국학 같은 책이 아닌가 해 요즘의 트렌드와 접목되는 부분을 찾기 위해 고심중이다.

“나이 든 분들에게는 을유문화사 하면 을유문고, 세계사상교양전집, 세계문학전집 등이 기억에 많이 남을 테고 요즘 젊은 독자들에게는 《국화와 칼》 《이기적 유전자》 같은 번역서와 얼마 전 느낌표 도서로 선정되었던 《삼국유사》가

아무래도 잘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 《THE ONE PAGE PROPOSAL: 강력하고 간결한 한 장의 기획서》 같은 경영서가 추가되었죠. 창립 당시 한국학, 인문학의 부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50년간 출판사를 유지해 오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해졌다는 반성하에 앞으로는 한국학이라든가 인문사회 분야의 책을 체계적으로 낼 계획입니다.”

하루 주문량은 건수로 치면 신학기 때는 100건 정도가 온다.

“저희는 2,500원짜리 책부터 38,000원 책까지 가격 폭이 크기 때문에, 전 보통 주문을 건수로 파악합니다. 부수로 환산하면 많을 때는 하루에 3천 부 나갈 때도 있지만 매번 그러지는 않죠. (웃음) 그리고 광고예산은 매출액의 5퍼센트로 잡고 있는데, 적은 금액이죠.”

7, 8년 전에는 을유문화사라는 이름이 부담이 되는 책들을 자유롭게 내기 위해 자회사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그때는 좀 이른 의견이었는지 결정이 되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을유문화사가 시류에 따라 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책의 방향이랄까 새로운 흐름들이 요즘 독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준비중인 책은 랜덤 하우스에서 나오는 ‘Modern Library chronicles’ 라는 시리즈로 《이슬람》 《가톨릭교회》 《르네상스》 《민족과 제국》 《독일제국》 일차분 5권이 4월 중순 출간될 예정이다. 하나하나의 테마에 대해서 기원부터 의미, 역사적 흐름까지 조명한 테마별 역사총서라고 할 수 있으며, 총서명을 어떻게 할지는 현재 논의 중이다. **한**

취재 양선희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